

LIG엔설팅(주) 전동균 상무



LIG엔설팅(주) 에너지환경사업본부 국내를 넘어 세계 속 '지구 환경지킴이'를 꿈꾸다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LIG엔설팅(주). LIG엔설팅은 2002년 설립 이후 ESCO사업 외에도 에너지 플랜트,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진단사업 등 에너지절약은 물론,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국내 선두기업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지구 환경지킴이'로,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LIG엔설팅의 에너지환경사업본부를 찾아가보았다. 글·사진 최원근(프리랜서)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을 위해 뛰는 기업

LIG엔설팅은 2002년 LIG손해보험에서 분사 후 (주)TRC Korea로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2003년, ESCO기업으로 등록된 LIG엔설팅은 에너지 관련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및 환경 설비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2007년 우수 ESCO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너지환경사업본부를 비롯해 전 부서가 에너지절약 및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이 개인과 기업을 지키고 ‘LIG넥스원’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LIG엔설팅’은 지구를 지키는 기업입니다.”

LIG엔설팅 에너지환경사업본부를 이끌고 있는 전동균 상무의 말처럼 LIG엔설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에너지 관련 선두기업으로써 지구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곳의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우선 Petro-Cokes, 폐기물 고형연료, 목질계 바이오메스 등의 대체연료 플랜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원고갈,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연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지역적 제한이 없고 공급량이 무제한인 청정 자연의 '지열에너지'와 태양열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태양광에너지' 연구 또한 설립 이후부터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LED(Light-Emitting Diode)조명 교체 등의 절전형 고효율 조명사업 역시 기업



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이는 지자체 가로등 교체 사업 등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조명사업의 경우는 ESCO사업과도 연계되어 초기 투자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진단, 설계, 시공을 비롯한 기타 제반 사항에 관한 LIG엔설팅만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모든 공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고객 및 관련 기업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술력과 정도 경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에너지진단사업은 ESCO기업으로써 모범이 되고 있다.

전문적인 원스톱 경쟁력을 갖춘 기업

“100억여 원이 투자된 울산 카프로의 화학공정 플랜트 사업이 2009년 1차 완료되었으며, 현재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감액은 30억 원 가량이며 투자회수 기간은 약 3년 안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00억여 원이 투자된 대규모의 ESCO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에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15명으로 구성된 전문 팀원들의 탁월한 능력은 물론이며, 진단부터 설계, 시공, 기타 제반 사항까지 원스톱(One-Stop) 시스템이 가능한 경쟁력 때문이다. 또한 ESCO사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에너지진단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 대체연료플랜트 등의 연구 및 사업이 기업 내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SCO사업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울산 카프로 공사와 같은 화공(석유화학 공정) 플랜트의 신규 설비적용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등의 공정개선 사업, 건물냉난방 시스템 개선사업, 미활용 에너지 회수용 히트펌프 시스템, 수축열 냉방 시스템, 인버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물론 모든 사업은 진단부터 설계, 시공 등 전체 공정을 자체 기술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사업은 국내 최고라는 수식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를 목표로 보다 전문적이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정도 경영을 토대로 지구의 에너지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전 상무의 강한 자신감은 실제 기업이 걸어온 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이 에너지절감과 지구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업 또한 고객의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성장을 이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말이다.

LIG엔설팅의 ESCO사업은 국내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재 동남아를 비롯해 중남미 등에서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위해 조직을 재편성하는 등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약을 계획 중에 있다.





(왼쪽부터) 이재근 이사, 전동균 상무, 오국환 팀장

독특한 기업문화로 세계 최고를 꿈꾸는 기업

‘오늘을 지키는 기업, 내일을 책임지는 기업’ LIG엔설팅에 들어서면 사무실 곳곳에서 굵고 선명한 글씨체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정도 경영과 고객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보여준다.

“ESCO사업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지구를 지키는 것’이라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객감동을 시작으로 정도를 지키고, 신뢰를 쌓는 것을 모든 사업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패 페스티벌’을 통해 잘못된 점을 함께 공유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은 ‘실패 페스티벌’은 전 사원이 참여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고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매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전 직원이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러한 기업문화 때문이다.

이외에도 LIG엔설팅은 한 달에 한 번 학습조직을 운영하며 팀원 간 개인 연구분야 및 실행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전 상무는 “학습조직과 실패 페스티벌은 직원 개인 역량 강화는 물론, 서로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직원 개개인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엔지니어 집단’으로 신뢰받는 선두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에너지환경 종합 엔지니어링 사업’을 목표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LIG엔설팅의 에너지환경사업본부. 더 높은 곳을 향한 그들의 발전의지는 분명 세계 속 선진 기업의 표본을 보여준다. 지금의 비전과 열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속 지구 환경 지킴이로 활약할 그 날을 기대해본다.